

별별신문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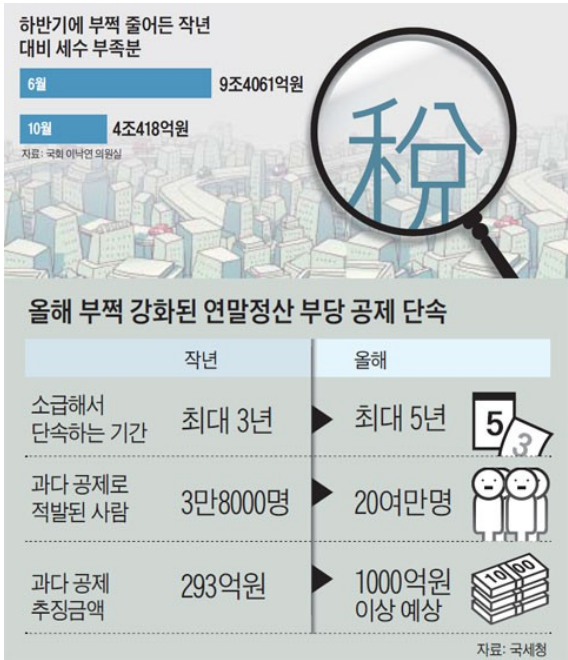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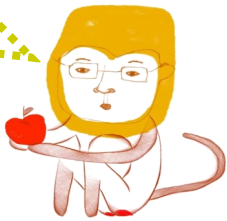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입니다.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가 정말 유행이기는 한가
봅니다. 성매매를 하러 온 구매자 남성이
자신도 자보를 썼다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
군요. 거기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다고 주먹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돈을 냈으니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논리에 구타당하고 욕 먹고 성병예방도 할 수 없고
수치스러운 말들을 듣고 내가 성매매 하는 여성이
라는 걸 알고 강간하려 하는 사람들, 돈의 출처는
묻지 않고 그저 돈 벌어오라고 하는 사람들, 결혼도
안한 여성이 산부인과 드나든다고 경멸하는 눈초리.
쉽게 돈 번다고 마냥 욕하는 사람들 성매매
한 번에 몇 십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남성들의 재력은
묻지 않고 여성에게만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낙태를 하고도 돈을 벌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오늘도 성매매를 하러 갑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나도 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입니다.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가 정말 유행이기는 한가 봅니다. 성매매를 하러 온 구매자 남성이 자신도 자보를 썼다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거기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다고 주먹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돈을 냈으니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논리에 구타당하고 욕 먹고 성병 예방도 할 수 없고 수치스러운 말들을 듣고 내가 성매매 하는 여성이라는 걸 알고 강간하려 하는 사람들, 돈의 출처는 묻지 않고 그저 돈 벌어오라고 하는 사람들, 결혼도 안한 여성이 산부인과 드나든다고 경멸하는 눈초리, 쉽게 돈 번다고 마냥 욕하는 사람들, 성매매 한 번에 몇 십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남성들의 재력은 묻지 않고 여성에게만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낙태를 하고도 돈을 벌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오늘도 성매매를 하러 갑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나도 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 망한 망상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거침없는 망상과 탄죽 걸기!



<稅收 비상... 5년前 연말정산까지 뒤져 세금 걷는다, 조선일보. 2013.12.04.>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웬 연말정산 타령 이냐구요? 언니들이랑 딱히 상관도 없을 얘기를 왜 꺼내느냐. 이번 호의 밑도 끝도 없는 ‘망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통상 1~2년 사이의 기록에서 과다공제를 찾던 국세청이 5년까지 조사범위를 대폭 늘린 것은 최근 불거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풀이된다.” <5년 지난 연말정산 때인 ‘세금폭탄’, 부산일보, 2013.10.21.>

정부가 세금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이전에 걷어들인 세금중에서 잘못 깎아준 세금은 없는지에 대해서 작년에는 최대 3년 전까지를 소급해서 단속했는데 올해는 5년 전까지 뒤졌다고 하네요..

정부가 걱정하고 탈탈 털다보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도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는 3만 8000여명을 잡아냈다면 올해는 20만명을 잡아냈답니다. 물론 세금을 제대로 걷는 일은 중요하지요. 다만 부자들, 고액체납자들을 잡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들, 서민들만 있는 대로 쥐어짜서 세금걷기에 혈안이 돼 있는 꼴이니 분통 터지는 거지요.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월급쟁이와 서민들이 봉이다 보니 이놈의 유리지갑을 그냥 확 뿌사깨고 싶네요.

관련 기사의 리플에는 ‘신호위반 단속도 심하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단속단속단속... 망상이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언니들도 지금 같은 생각 중이신가요? (찌찌뽕!) 왜 이리 연말이면 뽕뽕 단속이 있었는지, 연말연시, 퇴폐업소 척결!을 내걸며 업소 단속이 심한 것도 별금 물려서 국고 채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에라잇 젠장!!! 이래저래 춥고 서러운 겨울이네요.

[용]

<광고>

매월 만나는 통쾌함!
월간 비범죄화

블로그 <http://blog.naver.com/tjdqlfus>(성비련) 트위터 @monthly2013

月刊 비범죄화

10
2013

성관대여성비범죄화 학술대회

일시 2013. 10. 6(토) 12:30-20:00

[등록] 12:30-13:00
[개회식] 13:00-13:10
[주제발표 1] 13:10 - 14:30

주제 1 명명의 정치학, 그래봐야 미끄러지는 이름들

발표 1) 이 지긋지긋한 논란, ‘거시기’로 종식시키다

(김박순자, 한국예와서
여성우월주의로변질된페미니즘연구회)

: 성노동이나 성매매나 담론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넓은 성매매 스펙트럼 안에서 성매매, 성노동 풀방 요 정도로 각 명명이 가지는 한계와 함정을 비껴나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냥 ‘거시기’라 불러야 할 때이다.

발표 2) 호세 꾸엘보 에스빠늘을 샷으로 시키는 것과 병으로 시키는 것 사이의 차이가 불러일으키는 은유학적 주제

(이김순자, 연고대)

: 안주와 주류와 비주류로 명명된 존재들의 의미와 방식이 주체일 때 우리가 간헐 수 있는 딜레마의 정치학.

[휴식] 14:30 - 14:50
[주제발표 2] 14:50 - 16:10

주제 2 제도화 - 통제와 허가의 딜레마

발표 3) 금지, 합법, 비범죄화 - 이 모든 것을 넘어서다

(박이순자, 낙성대)

: 각 국가마다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방식의 사법 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조금씩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 넓은 성매매 스펙트럼 안에서 금지, 합법, 비범죄화 풀방 요 정도로 제도가 가지는 한계와 함정을 비껴나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퍼로써 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

발표 4) 체크남방과 민무늬남방이 교차하며 재현하는 이미지 시대의 정치·경제학

(박박순자, 청성대)

: 남방의 존재들이 반복하는 이미지를 들여다봄으로써 제도로 인한 통제와 허가를 초월한 디아스포라적 대안을 발견하다.

[휴식] 16:10 - 16:30
[자유토론] 16:30 - 18:30

자유토론 주제

1. 업주와 구매자는 처벌하면서 성관대여성만 처벌 안하겠다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주장하기
2. 일하는 공간의 안전, 노동자의 행위성을 드러내면서 성별화된 산업구조를 비판하고 착취하는 자들을 엿먹이기
3. 노동권을 주장하면서 노동 극복하기- 한계와 전망
4. 성매매는쟁의 비당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당사자중심주의를 경계하며

[만찬 및 네트워크] 18:30 - 20:00

주최 성관대여성비범죄화추진연합(성비련)

곰팡이와싸우는세입자연대, 남성연대만대하는남성모임, 도우미안쓰는노래방협회, 딸자식이될하고돌아다니지도지랄학부모회, 목소리작고아름다운골페미연대, 목 소리크고뭇생긴골페미연대, 명절날엄마의파업을꿈꾸는일인들은말년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이름], 反야근칼퇴근직장문화확립추진위원회, 서로비난안하는부모자식연합, 성구매할생각없는한중의남성모임, 성욕의총량을측정계량중인연구자(개인), 시급만오천원사대를꿈꾸는알바인연합, 애국국민이기 싫은국민연합, 여가부하는일별로밤에만드는여성주의자모임, 유종업소서바이벌가이드 ‘화톡’, 한국예와서여성우월주의로변질된페미니즘연구회 (우리 줄라 많지?)

주관 성비련, 세계여성젠더초월학회

후원 여성미래창조과학부

성관대여성비범죄화추진연합

제 6 호

1년만 출간하고 망할 예정

월간 비범죄화 블로그 <http://blog.naver.com/monthly2013>
성비련 트위터 @monthl2013

황기자의 팔랑귀



세상은 요지경. 뭐가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황기자의 팔랑귀’ 코너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 힘든 사안들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입장들을 모아 들어보려 합니다. 어허 ~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구나! 황희정승에 빙의 된 황기자는 두 개의 자아로 분열 중!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유나]

이 손님, 변태 아니야?



일하다 보면 별의별 진상을 다 만나나 보다. 그 중 ‘변태’진상에 대한 고민이 있어 적어본다.

누구를 ‘변태’라 하는가? 아마도 ‘이상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을 변태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상’한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왔던 채위나 성행위가 아닌 다른 것을 ‘이상’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항문 성교를 요구한다거나 어떤 특정 물건(회초리, 벨트 등)으로 자신을 때려달라고 하거나 언니들을 때리려고 한다거나 스타킹만 신으라고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SM플레이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변태인 거냐고 누가 물었다. 이 사람은 그건 놀이라고 한다. 그러면 항문 성교를 하는 사람들은 변태인 거냐고 또 다른 친구가 물었다. 이 친구는 애인과 항문 성교를 즐긴다고 한다. 다른 애는 솔직히 자기는 섹스할 때 손이 묶인 채로 하면 흥분되는데 그러면 자기는 변태냐며 화를 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취향은 존중한다. 여기 적고 싶지는 않지만 나도 나만의 취향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일하는 곳은 내 취향, 네 취향 따져가며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내가 그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낯선 일들을 하게 하는 건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 손님이 요구하는 것만 아니면 그런 이상한 성관계는 맺지 않았을 거다. 내가 원하거나 괜찮은 방식대로만 할 수 없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이상한 관계를 맺는 건 너무 싫다.

나는 그런 이상하고 낯선 성에 대한 취향을 하자고 하는 손님들을 변태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그러다보니 그런 손님들에 대한 느낌이 잘못 전달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변태 진상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걸 좋아하는 것 그 자체는 아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하라고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 손님들아,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더러운 세상이라지만 돈 받고도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좀 알거라!!

* 일하면서 탐탁지 않은 걸 손님이 하자고 했을 때 거절 못하고 해 놓고 나중에 변태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

뽕의 알파정보

여성청결제 사용! 잠시만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여성들, 여성청결제 사용 해본 적이 한번쯤은 있을 텐데요~ 여성청결제가 질에 있는 ‘좋은 균’까지 죽여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좋은 균이고 나쁜 균이고 다 없애버린다는거~ 그러면 질에 나쁜 균이 들어와도 싸워줄 세균이 아예 없는 거죠!! 여성청결제의 불편한 진실! 그렇다면 질에서 진물이 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거나, 미지근한 샤워기물로 오래오래 흘려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송이송]



1



소희 안녕? 별별신문에 소희의 그림들을 신고 싶어서 부탁을 했어요. 이 그림 제목이 <스무살의 초상>? 스무살의 초상. 하하. 오그라든다. 사진을 보고 그린 건데, 스타킹/팬티 사진-동영상 팔고 그런 거 있잖아. 조건 만남 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갖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거기서 뒷모습 찍은 건데 뭔가 되게 맘에 들게 나와서, 또 우연히 다리가 찢린 사진이 찍힌 거야. 뭔가 느낌이 다리가 찢린 느낌? 뭔가 간혀 있는 느낌? 그래서 날아가고 싶다고. 내 스무살은 왜 이럴까 하면서 그린 그림?

날개를 단 이유는? 다리가 없으면 날개라도 있어야지.

어딜 가고 싶어? 하하,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린 건 아닌데, 그냥 바깥? 뭔가 오피(오피스텔 성매매)를 했었는데 오피에 몰래카메라가 없다 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가기가 되게 심적으로 되게 힘들잖아. 나가면 안 될 거 같고, 계속 기다려야 할 거 같고, 손님 올 때까지 진짜 계속 대기해야 되는 거니까. 오피는 진짜 그때 밤에 하는 게 있어서 낮에 했는데, 낮에 하면은 예약하는 손님도 진짜 별로 없고, 계속 기다리며 한 명 오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괴롭고. (옆방 언니들) 마주칠 일도 없고. 이제 가끔 긴장하고 있다 보면 옆방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그러면은 나는 손님 없는데, 저 언니는 날씬한가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초이스됐구나, 그런 느낌 들고. 그냥 계속 지레 짐작만 하는 거지.

이 날개에 까만색 점이 있는데, 새의 눈 같았어. 날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소희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뭔가 압정 박은 느낌이었었는데, 되게 인위적인 날개? 해해. 그냥 나를 이렇게 지탱할만한 다리가 없으니까. 내가 이 땅에 내 다리를 딛고 서있을 수 없다는 느낌? 이 그림을 그린 곳이 마침 학교였는데, 다른 애들은 애들끼리,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계속 그 이질감 같은 것도 겪고 있었고, 내 자리는 없다는 느낌? 그냥 계속 여기에 안 어울리는 느낌? 그게 있었어. 내 발로 내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2

응,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잘 느껴진다. 그 다음, 이 그림은 <초경>? 이거는 중학교 때 생각하면서 그린 건데, 학생일 때, 교복 입으라고 머리 자르라고, 되게 무성적일 걸 되게 강요하면서, 이제 생리 시작하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여자가 됐다고 하고. 그림 그 전에 나는 여자가 아니었나? 막, 그런 것도 있구. 왼쪽 사람은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렸어. 인어 꼬리 그린 건데, 인어공주가 되게 희생적이고 딱 그 여성상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인어(어머니?)가 딸한테, 생리 시작했으니까 너도 이제 여자가 되는 거라고 안아주고 하는 거야. 수수하고 그런 무성적이고 막 그런 거에서 뭔가 꾸밀 줄도 알아야 되고 화장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센스 있어야 되고.

현명해야 되고? 어, 그런 거 때문에 좀 힘들고. 압박감이 느껴졌을 거 같애. 하하 이제 여자구나, 인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 진짜 이 인어한테는 온갖 여성성이 다 들어 있네. 외모부터 해서 성격을 상징하는 인어꼬리라든지, 태어나 생리까지.

이건 언제 그렸던 거야? 열아홉 살 때? 그때는 뭔가 되게 여성스러워야 되는 거, 그게 되게 무섭기도 하구. 그때 조건만남 하고 있었는데 막 그 남자들이 교복 입고 오라고, 청순해 보이니까, 그러면서 뭐가 무성적인 걸 요구하면서 계속 여성스러워야 되고, 그 요구가 변태 같은 요구도 있고 하니까. 되게 끔찍하면서도 ‘아, 그냥 나는 여자구나, 여자구나’ 하는 느낌.

그러면서도 자기들과 섹스 해줘야 되구? 응. 되게 막 순수해야 될 거 같구, 교복입고 순진한 척 해야되구 이제. 하, 그러면서도 뭔가 이빠야 되고. 흐하. 나는 구매자들이 되게 어려운 걸 바라는 거 같애.

3

여자를 많이 그리는구나. 항상 되게 외롭고 누가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벗어나고 싶은데, 이 장소를 벗어나게 해 준 사람이 남자면 그 의미가 없잖아? 남자가 행하는 폭력에서 구해주는 사람이 남자면 뭐가 달라지지? 그냥 뭔가, 같은 여성, 누군가 언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게 있었어? 성매매 경험이나 이제 집에서 아빠한테 맞았으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게, 집에서 나오고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데 아빠라는 남자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남자에게 의존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니까, 그게 항상 걸리고. 처음에 조건 만남 할 때 자해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돈이 필요해지고 돈 때문에 하게 되고. 건전알바를 했었는데, 돈 체불 임금도 계속 생기고 막. 식당에서 한 번 일 했었는데, ‘너 뭐 방학 때 뭐하냐, 자기랑 같이 여행 가자. 같이 숙소 잡자, 남자친구 있냐’, 계속 섹드립 치고 엉덩이 만지고 지나가면서. 통로가 좁아서 부딪히는데 막 만지고 그러니까, 아 이 정도 접촉이면 노래방 보도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잖아. 그 모욕 견디고 시급 4000원 받는 거 보다 그냥 비슷한 강도로 노래방 보도 해가지구, 3만원 받는 게 낫지, 막 계속 그런 데로 가게 되고, 아 짜증나. 근데 때리는 사람도 있고 훔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하나하나 말하자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그냥 구매자들이 개새끼니까. 그딴 새끼 보기 싫으니까. 아 진짜 미칠 거 같애, 막 계속 즐기냐고 물어보고, 아니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계속 즐기냐고 물어봐.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참. 그러면서 되게 죄책감 없애려고 하는 거? ‘너도 즐기니까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존나 패고 싶어. 즐기긴 누가 즐겨 씨발. 그러게나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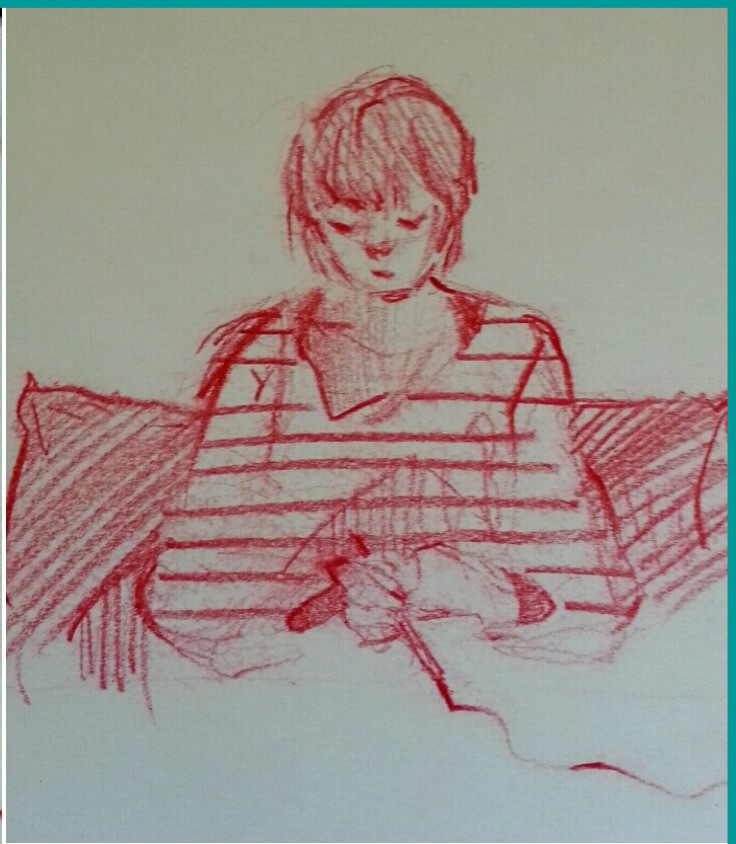


4
앗, 이 작품! <내가 사는 곳의 이정표>는 여러 가지를 오려 붙였네? 폴라주.
별별신문에서 준 책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눈 가는 부분을 잘라내서 붙인 건데,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김연자)>라는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 같은 느낌으로 그린 거야. 기지춘 얘기잖아. 근데 거기서 와 닿았던 부분이 되게 끔찍한 그 순간 속에서도 즐겁게 사는 공동체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었다고. 이거 붙이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에는 되게 환하게 덩실덩실 춤추는 그림도 그릴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어. 되게 힘들고 힘들고 힘든데 그냥 즐거운 일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도 또 뭔가 살만한 게 하나씩 있더라구.

소희한테 힘 든 와중에 살만했던 경험이 뭐가 있어? 예를 들면?

최근에 임신중절하고 나서 아는 언니한테 업소 얘기랑 일한 것 얘기했는데, 부정당하지 않았다는 거. 이제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도 좋았구. 그리고 최근에 진짜 이거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학교를 안 간다는 거. **하항 최고지!** 어 최고!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계속 힘없고 나 말고 누군가가 이렇게 받쳐줘야 됐고 항상 기대고 있고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날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렸어.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혹시 그림 모임 하면 할래?** 응! 여건만 되면. 나는 같이 하는 거 좋아하니까! 흐. 그냥 모여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혼자라는 게 제일 힘드니까.

[숨]



<쿵 짹쿵 짹> 사는 건 왜이리 지랄맞은지 까궤까궤

카페에서 분칠하며 단골손님 기다릴 때
근처에 앉아 공부하던 대학생
사뭇 진지하게 열중하고 있는 모습.
나와 같은 이십대인데 나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



우리도 노동자이다

성 노동과 성폭력의 경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가 판사로부터 학벌과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을 지적당하는 2차 피해로 인
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노래방을 다니는

사람이면 강간을 당했어도 유혹한게 되는가 라는 유서의 내용이 기
사화되긴 했지만, 수사과정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작금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나 또한 키스방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
로 다른 상황들은 배제된 채 굴욕적인 수사를 겪었고 자살 시도를 두
번 하게 되었다. 성폭력 그 자체보다도 도리어 무고한 것은 아닌지
취조당하는 분위기에 주눅 들고 공황 상태로 제대로 진술할 수가 없
었다. 하지만 나의 심리 상태에 대한 고려나 배려 없이 진술이 막히
면 억박지름을 당했다. 성폭력 피해 내용이 얼굴 드러내놓고 남성 형
사들 틈에서 까발려지고 덤으로 대질신문이랍시고 가해자랑 닿을 듯
한 옆자리에서 말을 섞으면서 조사 받았다. 그런데 나는 그 끔찍했던
고통 이전에 성서비스 노동자성에 대하여 더 절실히 밝히고 싶다. **성
노동자들이 처한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을 담보하면서 획득하는 수
입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고민해보고 판단했으면 한다.** 떠올리고 싶
지 않을뿐더러 아픈 과거이지만 용기 내어서 반추해보고자 한다.

감정 노동, 육체 노동을 동반한 성서비스
내가 처음 성서비스에 종사하게 된 것은 능수시험 직후였고, 고교 시
절 겪었던 충격적인 일들로 일종의 도피처와 독립 자금이 필요했다.
다방 업주는 내가 미성년자인걸 인식하고도 고용관계를 맺었다. 이
른 오전 출근하여 계단과 홀 청소를 시작으로 일과는 작되었고 일일
수십 잔의 커피와 차를 마시며 속이 울렁거리고 쓰렸다. 저녁때부터
는 술접대도 하면서 매상 압박을 받았고 온갖 종류의 불쾌한 스킨십
을 겪었다. 현기증과 구토 증세로 고생하면서 12시간 넘게 일한 그
다방에서 나는 월급 십원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유인즉 짧게 일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구인 광고비를 다시 지불해
야 하니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했다. 노동부에 호소해봤자 다방 종업
원을 홀대할 것이 뻔했고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면 나부터가 다방 종
사자임을 밝혀야 하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다.

가정폭력을 피하고자 선택한곳이 다방이었는데 첫 직장에서 임금을
페이니 너무 서러워서 울고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한 평 남
짓한 공간에서 로터리TV를 유일한 낙으로 여기며 저녁에는 룸살롱
으로 출근했다. 당시 나는 실명을 사용하였는데 마담은 “내 딸도 **
인데 불쾌하니까 너 다른 이름 써야지”, “부모님이 주신 성스러운 이
름으로 이런 일 하는거 아니다”라면서 핀잔을 주었다.

영업 부장은 종업원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무식한 애들이
라고 모욕하면서 성상납을 관행이자 의무라면서 모텔로 한명씩 데려
갔다. 신입이 올 때마다 모텔로 끌고가는 그 작태가 경멸스러웠지만
따르지 않으면 일을 배정해주지 않았다.

룸은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롭긴 하지만 지각비라는 명목을 부과하며
실상은 출근을 강제하고 있었고, 2차를 거부하면 아예 룸에 넣어주
지를 않아서 1차 TC만으로는 하루 평균 한테이블밖에 일을 못했다.
원래는 출근 순서대로 테이블을 배정해주기 마련인데 1차만 하겠다고
선언한 노동자들에게는 ‘손님들이 2차까지 염두해서 왔다가 못
간다고 하면 불쾌해 할것’이란 이유로 뒤로 밀려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일을 한건도 하지 못해서 차비와 시간만 낭비할때도 발
생하게 되거나 진상 처리반이 되었다. 나의 경우는 고시원이 아닌 보
증금 마련하여 독립하는것이 목표였던만큼 한푼이라도 모으려고 미
용실도 안가고 옷구입도 최소한으로 아꼈는데 나에 대한 투자를 덜
하니까 수입도 비례적으로 감소하였다.

**손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꼬투리 잡혀서 몇십 분내로 퇴
장당하면 TC비도 받지 못한다. 다른데서 거나하게 취해서 룸으로 오
는 손님들은 진상인 경우들도 많아서 신고식이라고 웃을 벗게 명령**

**해서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수위의 추행
까지 당연한 일의 범주로 보아야 하는건지 회의감과 자괴감이 심했
다. 유흥업소 노동조합의 결성과 서비스 직종의 연대가 절실했다.**

일부 언론에서 소위 업소 여성들이 명품이나 부대비용으로 빚을 지
는 이유를 단지 낭비벽으로 몰아부칠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TC와 2차비도 당일 지급이 아닌 다음날인데 간혹 마담이 갑자기 그
만두면서 떼먹기도 하고, 아는 언니는 손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났는
데 2차비를 떼이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하
지만 자신의 성매매가 불법이어서 차마 신고는 하지 못한다고 2차
성매매때 변태스러운 관계를 요구하거나 폭력을 쓰는 경우가 비일비
재하였다. 성매매 비용까지 법인 카드로 결제하면서 접대비 명목 절
세 혜택을 받는데 어이가 없었다. 업소에서는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는
성노동자들에게 탈세를 위한 영수증 조작을 시키면서 부려댔다.
회사라면 마땅히 이런 시간들도 근로시간으로 확보가 되겠지만 업소
는 대기시간은 철저히 무시되고 보전 받지 못한다.

성 노동자들의 연대로 단결권 행사를
나를 성폭행 하고도 성매매였다고 주장하는 업주가 운영하는 키스방
은 룸보다 더하였다.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매니저들(키스방 종사자들)로 하여금 일방적
인 각서를 쓰게 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주소까지 확보해두었다.
일할 때의 복장은 교복풍으로 정해져있으며 스타킹은 반드시 착용해
야 하고 업주는 유사성행위를 부추겼다.

키스방은 여타의 폭력 상황 노출과 위험도, 건강권을 담보한 성서비
스보다도 고도의 정신적 노동까지 요구되었다. 손님들이 주점을 거
쳐서 마지막 코스로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는 곳이었다. 성노동자들
에게도 노동자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4대보험 가입권도 생긴다면 산
재율은 타업종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될 것 같다. 사건사고율은 막연
한 추측보다 훨씬 많을것이고 특히 성산업 관련하여 신고되지 않은
성폭력 사례는 평균 신고율보다 저조하리라고 예상한다.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보니 중간에서 앞선비로 착복해가는 비율이 크더라도 이
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런 착취의 실태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업주
의 행태를 고소하였다. 하지만 업주는 치밀하게도 적절한 CCTV설
치로 수색을 교묘하게 피할수 있었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억울함도 컸지만 이대로 묵과한다면 업
주의 성폭력이 누군가에게도 미칠것 같아서 고심끝에 고소를 하였지
만 힘든 여정이였다. 원스톱 지원센터의 존재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
었고 신뢰관계인 동석도 가능하다는걸 미처 몰랐다. 법정에서까지 2
차 피해가 노골적으로 일어나는데 비공개적인 경찰서에서의 수사과
정은 더욱 심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성노동자의 위치에 처
하게 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무시된 채 개인의 윤리성으로 치부해
버리는것에 허탈함을 느낀다.

성폭력 생존자가 아닌 키스방 씌이나 일하러 가놓고 업주를 고소하
는 비양심적인 사람 취급 받는데 너무 억울하였다. **성노동자들에게
성폭력 신고가 돈때문일거라는 막연한 낙인부터 전제해버리면 호소
할데가 없어진다. 설사 어렵게 인정받는다곤 하여도 보호법익이 적
다는 등으로 가해자에게 형량이 감경되는 요인이 되어서도 안된다.
오히려 성노동자들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은
가중 요인이 아닐까 싶다.** 성폭력 피해를 겪고도 이중의 고통으로 힘
든 시기를 마주하고 있는 성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도움
받을 것을 권해본다. 나는 그 일을 겪고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약물
과 심리 치료를 시작하였지만 홀로 감당하기에는 성노동자로서의 사
회적 위치는 너무도 취약하고 저조하다. 성노동자도 기본권의 주체
라는 당연한 명제를 이 사회는 부정하고 있는것 같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편견과 굴욕을 견디고 투쟁하여 권리를 쟁취해왔
듯이 성노동자들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당연한 기본권으로 누
릴 수 있는때가 오리라고 확신한다.

[와글와글]진상, 하... 이걸 죽여 살려???

돈 줬다고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놈
찌질 거리고 몰래 콘돔 빼는 놈
연애해놓고 돈 없다며 배째라고 하는 놈
술 쳐먹고 팔라되서 사정 못 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놈
아가씨 생활 십 수년에 진상을 피할 길이 있으랴.
다종다양한 ‘진상’의 다채로움이어.

난 예전에 혼자 있을 때 홀에서 둘이 와서 야한농담에 희롱
다 하고 만질 꺼 다 만지고 놀 꺼 같이 행동하다 한 시간 동
안 가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시간 끝다가 내가 가라고 하니
기분 나쁘다며 치고 받고 싸움 났어. 결국 파출소까지 가게
된 그 새끼가 젤 진상이었어.

술이 딱이 되게 마시긴 했지만 멀끔한 외모에 좀 차려 입은 옷
차림, 상큼한 머리스탈에 눈이 뚱그려졌는데 에휴 술을 어찌나
쳐드셨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눈은 반쯤 감겨있네.
우선 샤워부터 하자니까 일하다 잠깐 나온 거라 물 튀면 안 된
다고 깨끗해서 괜찮다고?
그건 니 생각이시겠조.. 이 씹새 생각해보니 그 짓 시키기에 썰
는 시간도 아까워서 안 썰는다했나봐.
뭐 어쨌든 지가 그리 극구 샤워 안 한다니 심각한 애무는 패스
겠지 생각했건만 대충 속 스치려 하는 곳마다 콕콕 집어 ‘오빠
거기가 성감대야..’ 쓰봉 년 성감대가 왜 이리 많냐? 똥꼬까지
치켜들면서 ‘잘 좀 해봐 아저씨보다는 내가 낫잖아’ 요지랄!
쓰봉아 나이 먹었어두 냄새 안 나고 술 적당히 드신 아저씨가
훨씬 낫다!!!



돈 줄테니까 사진 찍자고 야외노출하자고 지랄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고 안 나오면 협박하고. 나는 내 사생활 없냐? 얼마
면 되냐고 돈 받고 하는 년이 존나 도도하다고 손찌검하고 SM
플레이하고 만나기 싫다고 하니까 스토킹하고 합격한 대학교
알아내서 협박하고 부하직원 시켜서 자기한테 데려오게 하고
강간한 새끼. 나중에는 그 새끼 부인한테까지 전화 와서 애미애
비 없는 쌍 년 이 라고 욕 먹 게 만 들 었 었 지.....아
악!!!!!!!!!!!!!!!!!!!!

돈 줄테니까 사진 찍자고 야외노출하자고 지랄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고 안 나오면 협박하고. 나는 내 사생활 없냐? 얼마
면 되냐고 돈 받고 하는 년이 존나 도도하다고 손찌검하고 SM
플레이하고 만나기 싫다고 하니까 스토킹하고 합격한 대학교
알아내서 협박하고 부하직원 시켜서 자기한테 데려오게 하고
강간한 새끼. 나중에는 그 새끼 부인한테까지 전화 와서 애미애
비 없는 쌍 년 이 라고 욕 먹 게 만 들 었 었 지.....아
악!!!!!!!!!!!!!!!!!!!!

멀쩡하게 생긴 손님. 호빠 마담이라고? 처음엔 다 이해하는 양
술 많이 마셔서 미안하다 말하는 센스에 맘이 괜찮았지. 근데
이 새끼 한다는 말이 ‘너네 직업이니까 쪽쪽~ 시원하게 싸게 해
줘봐’ ‘어차피 우리나라 니네나 술 마시고 오는 사람들에게 프로
인 사람들이잖아’ 나 원.. 술에 떡 된 사람 말상대 하는 거랑 몸
상대 하는 거랑 같냐? 술이 딱이 됐으니 감각이나 살아있나 서
다 죽고 서다 죽고. 나 완전 땀범벅이 돼서 기진맥진해져 있는
데 한 시간을 알리는 벨이 3번 넘게 울 때까지 이 새끼는 내 탓
만 하고 꼬추감은 더 죽어가네. 이 놈 안 되겠다고 나간다면서
지갑에서 만원짜리 한 장 꺼내주길래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싶
었는데
“근데 나갈 때 카운터에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나 못했으니까
돈 받아가야지”
어.이.상.실.
말도 하기 싫어서 카운터에 얘기하라고 앉아서 담배만 뽕뽕
태우는데 카운터에서 실장님 전화 오네. 아가씨가 거저먹으려
다 지 하지도 못 했다고 환불해주라고 개난리쳤단다. 성격도 있
어 보이는데 나한테 왜 그랬단다.. 내가 뭘 어쨌다고. 개억울..
알만한 놈이 와서 안다고 약점물고 더 하고 가네. 안다는 놈이
더 지랄이야!!



고 마 담 의 마 지 막 인 사

우린 누구나 완성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는 과정에서 술한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 겪어나가야 하는 수많은 한계에 부딪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건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 아닐까.

신은 시련과 함께 그걸 극복할 힘 또한 주신다고 믿는다. 홀로여서 외로운 존재인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함께 그 외로움과 아픔을 나눈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일 거다.

고마담의 마지막 인사..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민을 주고 받은 이 시간이 내겐 그런 과정이었다. 홀로인 존재인 우리가 서로를 다독거리며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위로를 건넨 시간들.. 고맙다.

From. 고마담

‘고마담의 고민살롱’은 이번호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고민을 나눠주고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준 고마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언니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 안좋았던일은 싹 다 잊어버리시고
좋았던 일은 그 기운이 내년까지 쭉욱 이어지길 바랄게요.

내년에는 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세요.

아프지 말고, 돈도 많이 버시고,
공공 앓아야 하는 속앓이도 없었으면 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2014년을 만들어 가는데
별별신문도 한 몫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별별신문 기자 일동]

살살정보

두루 살리고 살피는 정보

실장, 마담 등 업소 관련자가 마련해준 집,
혹은 방일수로 구한 집에 사는 언니들 많으시죠?
이번 호의 살살정보에서는 이런 업소 관련자가 갑자기 나를 옛 먹이는
상황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

“츄라이 볼 때 숙소 되냐고 물어봤어요. 보증금이랑 월세는 일하면서 갚으면 된다하더라고요. 그땐 진짜 이리실 줄 몰랐어요. 실장님 완전 착한 분이었던데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몸은 계속 아프고 맘도 너무 지치고... 그래서 실장님한테 얘기했죠. 나 일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가게 빛은 다른 일 해서 천천히 갚으면 안 될까요.

진짜 제가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니고 가게에 별어다준 게 보증금이랑 월세보다 많음 많았지 적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일 안한대매? 계속 출근하든지 빛 다 까든지 아님 몰라. 끊어!’

그 이후로 얘기 좀 하려고 실장님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받으면 끊어버리고... 지금 급하게 친구 집에 얹혀있긴 한데 계속 여기서 살 수도 없고, 진짜 뻘썩 한 장도 없는 상황이에요. 집 안에 제 살림들은 그대로 있고....

저 어떡하죠??”

(강남, 김미영 씨)

흔하진 않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 시작할땐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해서 들어가서 분명히 내가 살던 집이긴 한데 나는 계약 상 집주인은 아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임대차계약서는 본 적도 없는 상황인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답변은 ‘손괴죄는 가능할 수 있다’ 였습니다..... OTL

손괴죄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6조)

집안의 짐에 대해서 절도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글쎄요.....’ OTL OTL

집 안의 짐에 대해서 실장님이 맘대로 가져가거나 없애버릴 권리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살림들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도 ‘절도’가 성립할지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갚아나간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만으로 실장님을 처벌하는 방법은 어렵다는 말씀!(젠장..)

그렇다면, 당장 뻘썩 한 장 없는 미영 씨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답변은 쿨했습니다. “열쇠공 불러서 문 따세요” (허무..)

정리하면,

1. 실장님과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2. ‘열쇠집이죠?’ 전화해서 문을 따 뒤 짐을 빼내고,
3. 보증금을 갚아나간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률적 의견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